

2007 품.을.쓴.다

4 조선대 출신 뮤지컬 연출가 장 유 정 씨

뮤지컬... 영화... 거침 없는 도전



'여자 장진'으로 불리는 연출가 장유정씨가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전개되는 뮤지컬 '오! 당신이 잠든 사이에' 무대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지난 6일 서울 대학로 예술마당 2관에서는 인기 절정의 뮤지컬 '김종욱 찾기'가 공연되고 있었다. 출연 배우는 '주몽'에서 영표왕자로 출연중인 원기훈. 객석에 앉은 연출가 장유정(32)씨는 출연자들의 동선 등을 체크하며 수첩에 개선점 등을 적어 나갔다.

1시간 전 장 씨는 같은 건물 4층에 있는 공연장에서 뮤지컬 '오! 당신이 잠든 사이에'를 지켜보며 모니터링을 했다.

한 건물에서 자신이 대본과 가사를 쓰고 연출한 두 작품을 동시에 올린 장 씨는 임성 3년만에 대학로의 스타 연출가이자 극작가가 됐다.

'여자 장진'... 3년만에 스타 연출가

'장유정표 뮤지컬'은 영화와 작업을 진행중이며, 장 씨는 영화 '전래동화 살인사건' 시나리오도 집필하고 있다. 그녀는 '헬릭 투 동막골'의 장진 감독에 빗댄 '여자 장진'으로 불린다.

여수 중앙여고, 조선대 국문과를 졸업한 장 씨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다시 입학, 연출을 전공했다. 조대 시절 극예술연구회에서 활동했던 장 씨는 머리를 뺏박 밀고, 신발도 신지 않고 다니던 '괴짜'였다. 무작정 인도로 여행을 떠났고, 연극 공부를 위해 영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기도 했다.

"예술종합학교에 처음 갔을 때는 많이 해졌었다. 그곳에 온 친구들은 다 천재같더라. 나만 초라해 보이고, 그러다 외국 연출자 선생님이 내 작품을 보더니 엄청난 칭찬을 해주는 거다. 태어나서 그런 칭찬은 처음이었다. 자신감을 얻었고 재미있게 공부하고 작업했다."

그녀의 2006년은 화려했다. '김종욱 찾기'는 연일 만원사세를 이뤘고 '오! 당신'은 지난해 한국뮤지컬대상에서 대상과 작사상을 수상했다. 뮤지컬 '이' 작업을 진행했고 서울시립뮤지컬단과는 '키스미 타이거'를 무대에 올렸다.

"기대하지 않은 상을 받아 정신이 없었다. 주위

에서 여수 촌년이 출세했다고들 하더라. 가장 흡수력이 뛰어난 20대를 광주에서 보냈다는 게 내겐 행운이었다. 광주가 가진 역사적 사실과, 사람에 대한 애착은 큰 힘이다. 내 작품의 중심은 언제나 '사람'. 깨지고 아파도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건 사람의 품 아닌가."

그녀는 스스로의 표현대로 '워커 홀릭'이다. 현재 공연중인 두 작품이외에도 '난파의 송승환 대표와 함께 7월' 형제는 응급했다'를 무대에 올리며 9월에는 사랑이 과연 의무가 되는가라는 문제를 다룬 '멜로드라마'를 공연한다. 또 가수 김광석의 노래들로만 꾸민 뮤지컬도 준비중이다.

장 씨에게 영감을 주는 건 '여행'. 지금까지 다녀온 나라만 20여개국으로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등 여행객의 발길이 뜸한 나라를 선호한다.

세르비아에서는 내전의 상처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을 보았고 그런 감정들은 그의 작품의 자양분이 됐다.

그녀의 이름을 알린 '오! 당신'은 그녀의 꽃동네 봉사 활동 경험이 모태가 됐다.

뮤지컬 두 작품 동시 공연

"난 그곳에서 희망을 보았다. 그들은 버려진 것에 대해 전혀 슬퍼하지 않았다. 그냥 자신들의 가장 아름다운 한 때를 이야기하며 행복해했다. 그들이 불쌍한 게 아니라, 불쌍한 사람은 나였다. 내가 치유받았고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뮤지컬로 만들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전공을 살린 뮤지컬 영화 등 영화 연출에도 관심이 많다.

"지난해 연출 제의를 받기도 했는데 아직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직 뻔뻔 거어다니고 있는 아이(뮤지컬)가 혼자 설 때가 되면 영화에 도전해 보고 싶다."

그녀의 꿈은 무궁무진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금남로 가는 길' 10호 출간

광주일보 신춘문학회 시·소설·동화 신작 실어

매년 겨울이면 문학청년들은 열병에 빠진다. 바로 신춘문에 때문이다. 어렵사리 신춘문에 당선돼 '작가'의 칭호가 주어졌지만 기쁨도 잠시, 신인작가들의 글을 발표할 지면이 마땅치 않아서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로 10호를 맞는 '금남로 가는 길'의 출간은 뜻깊다. 광주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한 문인들의 작품으로 채워 만들어진 동인지가 10번째 생일을 맞이한 것이다.

동인지가 10년을 이어오는 동안 출간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초대 회장을 맡았던 이지훈(65·1972년 소설 당선)씨는 "광주일보 문화부가 신춘문에 출신들을 모아 동아리를 만들자고 했을 때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며 "당시 숨어있던 회원을 포함해 200여명의 출신 문인들을 찾아내고 주소록을 만들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동인지를 만들기 위해 개인당 10만원의 각출했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연회비(3만원)를 비롯해 문화관광부의 문예진흥기금과 광고 등으로 책을 출간하고 있다. 또 각종 문학상을 받은



회원이 있으면 상금의 일부를 신춘문학회에 선뜻 내놓는다. 이같은 끈끈한 연대식이 이들에게 '금남로 가는 길' 10년의 세월을 만들

게 한 것이다. 지난해 2005년부터는 신춘문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광주일보문학상'이 제정돼 이들의 창작활동에 더욱 힘이 실렸다. '제2회 광주일보문학상'은 2003년 당선자 주원규씨의 증편소설 '너를 심판하다'에 돌아갔다.

이번에 출간된 '금남로 가는 길'에는 주씨의 소설을 비롯한 신춘문학회 회원들의 시, 소설, 동화들이 실렸다. 지난해 신춘문예 당선되면서 신춘문학회의 새 식구가 된 정동철(시)·이원화(소설)·정미자(동화)씨의 작품과 심사평도 수록됐다.

한편 '금남로 가는 길' 출간기념회는 오는 17일 오후 2시 2007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상식과 함께 열린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또 다시 도마위 오른 미술대전

지나해 낙선작 2~3점 특선 등감...민화 부문 입선 남발

지나해 치러진 제25회 대한민국 미술대전을 둘러싸고 최근 부정의혹이 제기되는 등 한국미술협회(미협)가 주최하는 미술대전에 대한 해묵은 시비가 또 불거지고 있다.

이해를 제기하는 측의 주장은 지나해 가을 전시 구상부문 심사에서 낙선된 작품 2~3점이 특선으로 등감됐고, 봄 전시 민화 부문에서는 출품작의 15%만 입선시켜야 하는 운영규정을 무시하고 입선작이 남발됐다는 것. 1차 심사에서 낙선한 작품이 심사위원

원 전원외의 동도 없이 입선작 명단에 끼여 들고 결국 특선까지 차지한 것은 현 집행부의 개입 때문이라는 주장이지만 현 집행부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미술대전에 매년 1억~1억2천만 원의 문예진흥기금이 지원돼오고 운영자금 10억 원 가량이 적립된 상태나 매년 심사 과정과 수상자 선정을 둘러싸고 지연, 학연, 인맥에 치우쳐 수상자를 선정하고 금품이 오간다는 잡음이 그치지 않았다.

/연합뉴스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Chonnamgosi Academy and Taeyang Sangsa, featuring property listings and contact information.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Daedong Samil Real Estate, listing various properties for sal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LC Tower (주), highlighting live-in and rental option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Ilgongin Real Estate, offering various types of housing.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Minmoo Real Estate, featuring high-quality properti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Geumgang Real Estate, listing premium real estat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Toowoong Real Estate, providing details on property listing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Jeongwoo Real Estate, showcasing diverse real estate option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Homecon Real Estate, featuring a representative and company information.